

“최고의 프리미어리거 돼라!”

LG전자, 설기현 선수에 가전제품 증정



LG전자는 영국 프리미어리거로 활약하고 있는 설기현 선수에게 가전제품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가 제공한 가전제품은 초콜릿폰과 PDP TV, 헤드폰,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이다.

LG전자는 1년여 전 영국 프리미어리거로 활약하는 설기현 선수에게도 같은 제품을 제공한 바 있다.

LG전자 영국법인 나영배 법인장은 “LG전자와 함께 최고의 프리미어리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마리우 1천호골 ★ 리우에서 이룬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브라질 우승의 주역인 호마리우(40)가 자신의 소원대로 프로 통산 1천호골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호마리우가 최근 브라질 축구의 상징인 리우 시내 마리카낭 경기장에서 1천호골을 넣고 싶다는 뜻을 밝힌 이후 이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 보아 비스타 클럽이 호마리우 영입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 프로 통산 1천호골은 호마리우에게도 축구황제 펠레에 이어 사상 두 번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클럽으로서도 충분히 흥행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마리우는 그러나 브라질로 복귀할 경우 지난 1985년 프로생활을 시작했던 리우의 바스코다 가마 클럽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계약 성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통산 986골을 기록한 호마리우는 그동안 미국 마이애미 FC를 거쳐 호주 A-리그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클럽과 단기계약을 맺은 상태다.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이번엔 마라톤 도전

루드 프랑스(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를 일곱 차례나 제패하고 은퇴한 ‘사이클의 전설’ 랜스 암스트롱(35·미국)이 미국 뉴욕마라톤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생명의 위험까지 받았던 3기 고환암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된 암스트롱은 6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센트럴파크로 끌어가는 마라톤 풀코스에서 생애 처음 42.195km를 뛴다.

첫 도전이지만 프랑스 전역 3천km가 넘는 거리를 3주 동안 달리는 투르 드 프랑스를 통해 단련된 암스트롱의 몸이 마라톤 풀코스를 충분히 이겨내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암스트롱이 2시간30분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암스트롱은 이번 마라톤 도전을 통해 암 연구센터에 기부할 60만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다. 암스트롱이 뛰는 만큼 레이스에서 그를 이끌어주는 ‘페이스 메이커’의 면면도 화려하다.

암스트롱은 “경쟁을 위해 뛰는 것은 아니다. 마라톤은 내 개인적인 목표였다. 3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강성환씨 장남 형구(해남경찰서)군 이주열(해남군청)씨 장녀 윤정(해남 장애인복지관)양=11일(토) 오전 11시40분 해남군 해남읍 동아웨딩홀.

▲ 정중주(대한교육사 상무)씨 장남 남호군 김점수씨 친녀 송윤양=11일(토) 오후 1시30분 버킹엄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 김영철씨 장남 병렬(치과의사·고려대 안산병원)군 김민재씨 친녀 지연(기업은행 연희동지점)양=11일(토) 오후 5시 서울 규수당웨딩홀 3층 아치홀.

▲ 오병면(광주桐상 대표)씨 차남 창성군 황성칠씨 친녀 수진양=12일(일) 낮 12시40분 이화웨딩캐슬 2층 행복홀.

▲ 이동주(전 광주은행 본부장)씨

차남 석환군 이동명씨 장녀 천옥양=25일(토) 낮 12시 서울시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예식홀, 피로연 12일(일) 오후 5시 백운동 프라도호텔 3층 크리스탈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 범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후 9시~오후 1시 사무실 223-2100

▲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기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 전국 ‘최우수시장’ 선정 광주 양동복개상가 정 대표이사

“30~40대 타깃 마케팅 효과 봤죠”



광주 양동복개상가가 재래시장 활성화의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200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최우수시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때 공실률이 30%에 육박했지만 요즘은 빈 점포를 찾아볼 수 없고 고객과 매출액도 지난해보다 30~50%까지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여타 재래시장의 공실률이 평균 20%인 점을 감안하면 양동복개상가의 활성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현대식 시설로 리모델링

유통업계는 시장규모에 비해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비중이 큰 광주지역에서 양동복개상가의 선전을 재래시장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양동복개상가(주) 정대규(54) 대표이사는 “올들어 강원, 충남 등지에서 우리시장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상인들과 공무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동복개상가의 성공비결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첫 손에 꾸몄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억원을 들여 아케이드와 삼가 안내 전광판 설치 등 28개 사업을 벌여 낡은 시장 인프라를 깨끗이 리모델링하면서 30~40대 젊은층까지 시장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장 내부시설을 정비하는 2차 시설 현대화사업이 다음달 중순 시작해 내년 3월에 끝나면 낡고 불편하다는 재래시장의 고정 관념이 깨질 것으로 자신합니다”

정 대표는 “재래시장 상품이 싸고 품질도 괜찮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드문데 고객들이 시장을 외면해왔던 것은 이용의 불편함과 상인들의 불친절 때문이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상인대학을 개설해 상인들에게 고객응대법 등 서비스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시장으로 고객들을 불러들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임기의 대표이사직을 세번째 연임하고 있는 그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02년과 200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상인들이 시장을 떠나 공실률이 30%에 달했습니다.

다. 대로로는 안되겠다 싶어 건물주들 설득에 나섰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해 3차례에 걸쳐 40~50%를 인하하자 상인들이 되돌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구·기기류·의류 전문상가 재도약

올해로 31년째를 맞은 양동복개상가는 현재 692개 상가가 모두 차 있고 가구·커텐·의류 전문상가로 재도약을 하고 있다.

전국재래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과 광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을 겸하고 있는 정 대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장별 특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병은·장충권씨 공동논문 ‘노가다의…’

‘제 6회 삼복학술상’ 최우수상

삼복서점 연구비 500만원 후원

주제 모두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4일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광주 삼복서점(대표 김성규)이 후원한 연구비 500만 원과 상장을 전달받았다.

삼복서점은 지난 1992년 개점한 이래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국내

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제4회 학술상부터 연구비 등을 후원해오고 있다. 사회조사연구소는 지역 서점인데도 국내 인문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연구비를 선뜻 지원한 삼복서점의 높은 뜻을 기려 그 해의 가장 우수 논문에 ‘삼복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회조사연구소는 또 최성수(31)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의 ‘민



〈정병은 교수〉 〈장충권 연구원〉

주화와 제도적 유산 그리고 복지정책-

-의료보험이 혁신운동, 1980~2003’과 흥

승현(29) 미국 뉴욕대 대학원생의 ‘여

론과 정책: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응답성’ 등 우수상 2편과 장려상 5

편도 선정했다.

사회조사연구소 관계자는 “5회까지

최우수상을 한 번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두 편이 최우수상 후보로 뽑혀

막바지까지 경합을 벌이는 등 ‘사회연

구학술상’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술적 완성

도 물론 좋은 내용을 쉽게 쓰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한국 락의 대부 재기하다”

NYT, 은퇴 순회공연 나선 신중현씨 집중 조명



‘한국 락의 대부 재기하다’

뉴욕타임스는 은퇴 기념 전국 순회공연에 나선 신중현씨의 인생을 집중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한국 락의 대부 재기하다’라는 제목의 대구발 국제면 기사를 통해 한국전 직후 미군부대에서 ‘제이 신’으로 출발한 그가 은퇴공연을 통해 기나긴 음악인생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씨가 미국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의 아티스트가 미국 유력지 2곳으로부터 소개된 것은 무려 이례적인 일로 한국 락음악의 선구자로 살아온 그의 음악인생에 대한 미국 언론의 찬사인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전쟁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새로워진 한국사회가 그를 당황케 하고 다소 실망시키는 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와 그의 음악이 재발견되고 있다면서 대구 공연 전후 신씨의 심정과 함께 ‘한국 락의 대부’가 되기까지 화려하지만 힘들었던 그의 인생사와 음악인생을 전했다.

구노회 국회의원 별세

이정희 변호사 사무실 개소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를 지낸 구노회(具農會) 의원이 5일 새벽 자살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46세.

17대 국회 들어서 협의 의원이 유명을 달리하기는 구노회 의원이 처음이다.

유죽은 부인 류현미씨와 1남1녀. 발인은 7일 오전 빈소인 충남대병원 영안실(042-257-4864)에서 있으며, 영결식은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이정희 변호사 사무실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퇴직한 뒤 서울시 서초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

◆ 전남일보

▲ 논설주간 이홍재 ▲ 논설실장 나종경

▲ 문화사업국장 박병모 ▲ 편집국장 양동원 ▲ 편집부국장 김종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전남도 문화체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는 지난 4일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산업연수생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시 오동도, 전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을 방문하는 문화체험행사를 가졌다.

자. 010-6620-7179

▲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한영. 019-601-6989

▲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생 모집=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미용·제과·제빵, 피아노, 컴퓨터 기초과정 및 자격증반. 문의 375-0035~6

▲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

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